

가성비·친환경에 감성까지 더해 취향에 딱 맞는 보금자리 꾸며볼까

상반기에 그나마 재미를 본 가구, 인테리어 시장이 하반기 들어 다소 위축되고 있다. 전방산업인 주택경기의 꾸준한 침체와 소비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다.

그래도 가을이다. 가을은 결혼, 이사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며 전통적으로 성수기에 속한다. 개별 회사들도 가성비, 가심비, 친환경 등을 접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이사가는 집은 이사가는 대로 발품을 팔고 찾아보면 보금자리에 꼭 맞는 제품이 눈에 쏙 들어온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정보탐색부터 견적·시공까지 ‘창호 전문 플랫폼’서 한 번에

KCC

이맥스클럽

창호 플랫폼 ‘이맥스클럽’ 방문자 증가
단열·차음 등 주거성능 개선 수요 늘어

KCC가 선보이고 있는 창호 전문 플랫폼인 ‘이맥스클럽(Emax Club)’이 가을 이사철과 리모델링 성수기를 맞아 고객들로부터 인기다.

단열과 차음 등 주거성능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KCC에 따르면 9월 초 보름간 이맥스클럽 홈

페이지 방문자 수는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10% 증가했다. 한 달 사이 홈페이지 유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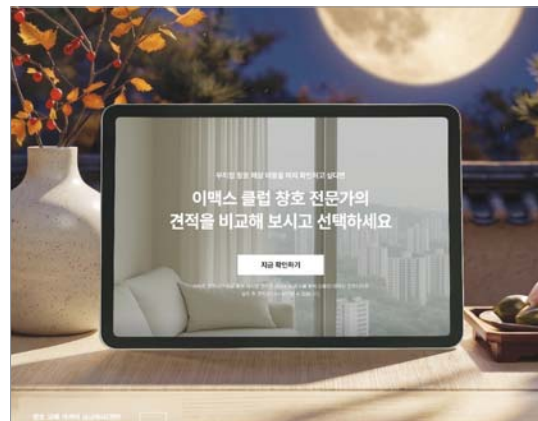
온라인을 통한 실제 창호 구매 검토 움직임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견적 신청은 전월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전체 회원 수도 10% 가량 늘었다. 가을 이사과 리모델링 수요가 본격화하면서 창호에 대한 관심이 정보 탐색을 넘어 상담과 견적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KCC의 설명이다.

창호는 주택의 단열과 기밀, 차음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축자재다. 특히 냉난방 효율

과 실내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 창호 교체도 주택 리모델링의 주요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KCC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와 전문 유통·시공 네트워크를 함께 강화하고 있다. 하이엔드 창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클렌체(Klenze)’를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맥스클럽’은 KCC와 전문 창호 가공·시공업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소비자는 ‘이맥스클럽’을 통해 지역별 전문 업체와 상담하고 제품 선택부터 견적, 시공까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CC의 창호 전문 플랫폼인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상담부터 시공까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브랜드 출범 20주년 특별 혜택… 가을철 집단장 수요 공략

LX하우시스

역대급 혜택 ‘지인페스타’

내달 5일까지 하반기 최대 할인 행사
창호·주방·바닥·벽지·단열재 등 할인

LX하우시스가 ‘LX Z:IN’ 브랜드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음달 10월5일까지 하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지인페스타’를 통해 인테리어 고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21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번 페스타는 가을 이사철 수요는 물론 노후 창호 및 주방 교체 수요가

몰리는 인테리어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LX Z:IN의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창호·주방·바닥재·벽지·도어·단열재 등 LX Z:IN 제품이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할 경우 제품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에 교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창호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고단열 창호 ‘뷰프레임’은 물론 PL(플라스틱)시스템창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의 주방가구 ‘셀렉션’을 비롯해 ‘에디션’, ‘엑스컴포트 5.0’ 등 바닥재 전 제품군과 ‘디아망’을 포함한 벽지 전 제품군, 국내 최고의 단열 성능을 확보한 ‘PF보드 단열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LX하우시스는 행사기간 동안 총 10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주요 지역에 위치해 있는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LX Z:IN 브랜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다음달 5일까지 하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지인페스타’를 진행한다.

소음 줄이고, 디자인 더하고… 공간 완성하는 바닥재 ‘눈길’

현대L&C

시트 바닥재 ‘소리지움 5.0’

스톤 디자인 확대… 제품군 총 10종
생활소음 저감·바닥 충격 흡수 효과

현대L&C의 프리미엄 시트 바닥재 ‘소리지움 5.0’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1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리지움 5.0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소리지움 5.0은 현

대L&C가 운영하는 시트 바닥재 중 기능성과 디자인을 강화한 최고급 제품이다.

현대L&C는 올해 초 프리미엄 제품인 ‘소리지움 5.0’을 리뉴얼했다. 최근 주거 인테리어에서 천연석 느낌의 바닥과 대형 타일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스톤 디자인을 대폭 확대하며 스톤 6종과 우드 4종 등 총 10종으로 제품군을 재구성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중심으로 벽지·가구·도어 등 주변 인테리어 요소와 연계해 공간 전체에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개발했다.

넓은 면적에 시공했을 때 같은 무늬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줄였다.

소리지움 5.0은 생활소음 저감과 편안한 보행감 등 프리미엄 바닥재에 걸맞은 기능성도 갖췄다. 전체 두께 5mm 가운데 약 70%를 고탄성 쿠션층으로 구성해 바닥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한다.

내구성과 생활 편의성도 갖췄다. 표면이 긁힘과 찌힘에 강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적용해 어린 자녀나 고령자, 반려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의 보행 안정성을 높였다. 한국애견협회의 ‘PS(Pet Safety)’ 인증도 받았다.



현대L&C 소리지움 5.0 그레이스 스톤을 적용한 모습.